

강원도정 소식

인천서 직거래장터 운영

‘감자원정대’ 풍부한 인심 전해

강원도 서울사무소(소장 최성철, 사진)는 6월 30일부터 1일까지 2일간 인천 연수구청 앞 광장에서 ‘강원도 농수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강원도 단독 직거래 장터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12개 시·군 27개 생산자 단체(영농조합 등)가 참여해 250여개의 품목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값에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강원도 전통시장 ‘감자원정대’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도내 영세 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으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강원도의 풍부한 인심을 전했다.

강원도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은평구청에 이어 이번에 연수구청 장터를 새롭게 개척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시켜 도내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강원도 청정 농산물을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서울사무소는 이밖에도 강원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주민들이 도내의 친환경 농업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농촌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성철 소장은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면서 강원도 생산품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직거래장터를 겸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농촌체험 관광 홍보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정가/소식

한나라당 원주서 비전발표회 개최

0... 한나라당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2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일 원주에서 7명의 후보자들에게 비전을 듣는 ‘비전발표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사에 이어 3일 고성지역 157명을 비롯해 전국 각 시·군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함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4일 제12차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도당 핵심당원 SNS교육

0...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최종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한림대학교 연암관 4층 인문대학 PC실에서 2012총선 민주당 출마준비자 및 핵심당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SNS 온라인 홍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관련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활용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내 선출직 공직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2012 총선출마 희망자, 핵심당원 등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민원서류 24시간 연중 발급

군청 본관 앞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 일부 발급시간 제한

고성군이 지난달 2일 2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청 본관에 설치한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창구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로 민원인이 각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아무 때나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국민기

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어선원부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일부는 발급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야간 및 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군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급유지 보관 및



관리, 월 1회 이상 보안점검표 작성·관리, 유지보수업체의 관리 감독 등 보안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어업인의 날’ 부활 ... 매년 4월 1일

송훈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자원고갈과 유가상승 등 조업여건 악화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어촌과 어업인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자원고갈과 조업활동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 제고와 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소속 민주당 송훈석 국회의원(사진, 속초-고성-양양)이 지난 3월 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제정됐다가 1973년 관농의 날로 통합된 이후 무려 38년 만에 어업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기념일이 부활됐다.

송훈석 의원은 “현 정부 초기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각종 정부정책

과 지원에서도 소외받고 홀대받아 온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확충 및 자긍심 고취, 국가적 관심도 제고 차원에서 이 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조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헤치며 조업활동을 위해 고생하는 전국의 어민가족과 어업인, 수산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감사와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열약하고 침체된 국내 수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설악권 4개 시군의회의 의원 친선체육대회

제13회 설악권 4개 시군의회의 의원 친선체육대회가 지난달 30일 양양실내체육관에서 황중국 고성군수, 채용생 속초시장, 정상철 양양군수, 이기순 인제군수 등 자치단체장들과 시군의회의 의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광호 기자